

“출항”은 민주주의 갈망과 투쟁 정신 담은 곡



제13회 오월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목화' 팀의 '출항' 공연 장면.

(목화 제공)

‘군화발과 폭압에 짓눌렸던 80년 5월 광주, 희망을 담은 ‘목화’ 씨앗을 품고 미래로 ‘출항’한다.’

최근 제13회 오월창작가요제가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막을 내렸다. 8팀의 치열한 경합 끝에 대상(상금 1000만원)의 영예는 ‘출항’을 부른 ‘목화’ 팀에 돌아갔다.

(사)오월음악이 주최한 이번 가요제는 5월 정신을 음악으로 계승하고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곡 ‘출항’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투쟁 정신을 뱃노래에 빚낸 곡으로, 국악적 사운드를 차용한 프로그레시브 록 장르다. 악곡 전반에 흐르는 강렬한 사운드는 기존의 5·18을 주제 삼은 정적인 곡들과는 달라 인상적이다.

“노 저어 가세 바다로 나아가세/ 바다로 나아가자 어기어지” 등의 후렴구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힘있고 역동적이었다.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염원을 ‘출항’이라는 이미지를 연계해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가사는 ‘목화’의 리더인 승민정(여·27) 씨와 팀원들로부터 이번 수상 소감, 연습 과정, 향후 계획 등을 들었다.

“오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번 공연에 오려 몰입해서인 것 같아요. 5·18 영령들의 한을 모티브로 창작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대적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죠.”

카리스마 있고 리듬감이 돋보이는 승 씨의 목소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목화’ 팀 멤버 5명 프로그레시브 록 장르 ‘희망·의지 담긴 ‘5월 음악’ 계승’

리에서 경연을 준비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는 이번 경연을 위해 인천, 광명에 거주하는 팀원들과 새벽연습을 강행하는 등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승 씨는 “이모가 광주에 거주해서 평소에도 자주 방문했다. 영화 ‘택시운전사’ 등 5·18을 조망화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늘 시대적 아픔을 사유해왔다”며 “이 같은 점들이 5·18을 소재로 한 창작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출항’은 어둠의 바다를 찢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곡처럼 들렸다. ‘5·18이라는 주제를 담아내기 위해 어떤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썼느냐’는 질문에 기타리스트 배현슬 씨는 “비브라토를 섞은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공간감을 자아내도록 주안점을 뒀다”며 “마치 출항하는 배에 승선한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곡은 리버브 이펙터(소리 효과)를 많이 사용한 덕분에 기타 선율을 듣고 있으면 물 위를 유영하는 느낌을 준다.

피아노 연주자 손예은 씨도 “5월 비극을 강렬하게 묘사하고 다른 악기들에 힘을 더 주기 위해, 피

아노는 의도적으로 한 마디에 한두 번 정도만 연주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스리스트 이하은 씨도 마찬가지. 그는 “다른 기교나 테크닉 없이 8비트 연주로 끝까지 곡을 밀고 나갔다”며 “이는 음악으로 ‘노’ 짓는 느낌을 환기시키는 최선의 주법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나명균 씨의 드럼연주는 웅장한 느낌을 줘 광주의 상흔과도 겹쳐졌다.

한편 가요제 당일 멤버들은 전원이 검은 옷을 입고 연주했다. 무채색 의복으로 통일한 것이 ‘5월에 대한 추도의 의미인지’ 묻자 “팀원들이 털 주목받더라도 시대적 아픔을 공감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다”는 승 씨의 답이 돌아왔다.

다만 기타에 새빨간 ‘눈물 고름’을 매달고, 허리춤에는 붉은 노리개를 패용해 공연의 포인트를 살렸다. 이 같은 모습은 “살을 갈라서 피워낸 꽃”이라는 가사를 내뱉을 때 5월 영령들의 한이 담긴 ‘피눈물’로 다가왔다.

“내가 만약 시민군이였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광주 영령들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빛을 잃지 않도록, 음악으로 계승하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가요제에서는 레드 클라인의 ‘BLACK BIRD’가 금상을, 집시유랑단의 ‘웃는 돌이 은상을, 용연동 라이브의 ‘해 뜨는 퇴근길’이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본선 시상 곡은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우리 예술세계는 졸업 그 너머에 다다를 것”

조선대 서양화전공 졸업작품전, 27일~12월1일 조선대 미술관

목적한 곳에 이르러 닿는 것을 ‘다다르다’라고 말한다. 또한 어떤 것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정한 목표에 이르고 나면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다다르다’는 도전과 희망과 같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

젊은 예비 화가들이 ‘다다르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회화학부 서양화전공 졸업예정자들이 그 주인공.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전시에는 모두 35명이 참여한다.

조운성 교수는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한 학생들 작품은 다양한 형식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동시에 작가로서 시작을 알리는 데뷔작이기도 하다”며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광주로, 대한민국 미술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은 류현정의 ‘일상에서 찾은 휴식의 흔적’을 비롯해 염혜진의 ‘피어나는 마음’, 유수연의 ‘씨 내려가기’, 조정민의 ‘빛 한 줄만 안는 방안’ 등이다.

염혜진의 ‘피어나는 마음’은 전시 주제 ‘다다르다’를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 담벼락을 지렛대 삼아 푸른 나무가 자라고 그 아래로는 피아노가 놓여 있다. 무심히 건반을 두드리는 여학생의 모습에선 푸른 청춘의 고민과 열망 같은 게 느껴진다.

조정민의 ‘빛 한 줄만 안는 방안’은 빛이 차단된 좁은 공간에 갇힌 젊은이를 초점화한 작품이다. 얼굴 부분만 볼 수 있는 사각의 틈으로 깨만



조정민 작 ‘빛 한 줄만 안는 방안’

천에 눈이 가린 젊은 청춘이 보인다. 취입, 주거 문제 등에 짓눌린 오늘의 젊은이들 모습으로 다가와 안타까움을 준다.

한편 졸업예정자 대표 송은경 학생은 “대학에서의 경험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들의 예술세계는 졸업 그 너머를 향해 있다”며 “혹여 두려움지라도 그동안의 배움과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송정역세권 활성화 ‘뉴트로송정감사제’

5개 상권 방문 고객 이벤트... 25일 1913송정역시장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이 오는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913송정역시장(사진)에서 ‘2023 뉴트로송정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송정역세권 5개 상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로, 1913송정역시장을 비롯해 광산로, 송정향토떡갈비거리, 중남회, 내상로가 포함돼 있다.

이벤트는 두 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송정역세권 5개 상권에서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면 25일 행사장에서 추첨을 통해 총 400만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이 증정된다. 또 하나는 25일 당일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번외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LG 스탠바이미스마트 TV를 증

정하는 ‘뉴트로 송정 Live 이벤트’가 그것.

행사 당일 1913송정역시장 샛터1에서는 친친 클래식, 아트플래닛, 광주 브라스 콰이어, Redies가 출연해 무대를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이다. 또한 인기 유튜브인 ‘김켄리’와 ‘프롭서’가 상권 곳곳을 돌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트로 송정감사제 홍보를 맡은 (주)록 윤진영 대표는 “이번 이벤트는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시장이 송정역세권에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인플루언서들이 당일 라이브 방송에 앞서 본인들의 채널에서 이번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꿈마루작은도서관, 작품전시회

광산구 수완동 신원마을 LH 꿈마루 작은도서관(관장 정기열)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입주민과 지역주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 프로그램 등 독서문화 행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래동화와 함께해요, 똑똑한 주부생활, 이팔청춘 실버레크레이션 등이 있다.

꿈마루 작은도서관이 지난 7개월간 진행했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작된 100여개의 작품전시회를 오는 24일까지 ‘꿈마루 작품전시회 및 성과발표회’를 연다.

활동을 담아낸 동영상 및 작품 감상과 함께 24일 오후에는 주민들이 주최하는 예술 공연과, 특별프로그램으로 마술공연이 펼쳐지는 입주민 한마당 행사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2023년 LH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기획됐으며 광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창 임방울상’에 김찬미 명창 선정

제5회 ‘국창 임방울상’ 수상자로 김찬미(사진) 명창이 선정됐다. 상금은 600만 원

‘국창 임방울상’은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임방울국악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중에서 국창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판소리 계승 및 진흥 발전에 공적이 혁혁한 자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올해는 정읍시립국악단에서 26년 동안 재직하면서 ‘창극 정읍사’, ‘가무악 정읍사’ 등에서 활약해 온 소리꾼 김찬미가 수상자로 뽑혔다.

김 씨는 제13회 임방울국악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동초제 판소리 흥보가, 수궁가, 심청가 완창발표회를 통해 국악 계승 발전에 기여해 왔다. 임방울 국악교실 판소리, 민요반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국악인구 저변 확대에 힘썼다. 국내 및 해외공연에 8회 참여, 광주의 예술혼을 세계화했다는 평가다.



김찬미 명창

이외에도 2017-18년 광주시내 초·중·고교에서 ‘국악을 통한 예절교육’을 순회 실시했으며, 남도민요 1,2집 음반을 발매했다. 국창 임방울의 소리향연 공연에 9년 동안 총 21회 참여하면서 전통국악 진흥 발전에 이바지했다.

임방울국악제 김중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수상자를 일회성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및 지원에도 전념해 권위와 명예를 동시에 갖는 상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임방울판소리체험장 6층에서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